

호주의 한국어 학습자의 경어법 이해에 대한 사회화용론적 접근

정우정 · 이나라[†]
퀸즐랜드대학교

Understanding of Korean Honorifics by L2 Korean Learners in Australia: A Socio-Pragmatic Perspective

Woojeong Jeong & Narah Lee[†]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BSTRACT

The Korean language has an established honorific system that reflects the Korean society's hierarchical and relational nature, where respect for elders and individuals of higher social status must be shown through language (Brown, 2015). This cultural aspect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to L2 Korean learners. Taking a socio-pragmatic perspective, this study explored how L1 English speakers living outside the target language society comprehend and apply the honorific system when speaking in L2 Korean.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eight L1 English speakers learning Korean in Australia. All eight participants completed a survey revealing their motivation for, first impression of, and biggest hindrance in learning Korean. Next, seven of them were interviewed concerning how they conceptualised, perceived, and used Korean honorifics. The survey and interview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appeared to have a subjective attitude towards the application of honorifics instead of considering the listener's relational status even when the honorific system had been learned and mastered for a considerable period. Although the participants were learning Korean while living outside the Korean society, which makes it challenging to understand honorifics or establish conversational concepts completely, they recognised honorifics as an important part of the Korean language; however, this understanding was overpowered by their cultural identity as "Australians." The findings suggest that an L2 speaker is not a target-like object unconditionally accommodating socio-pragmatic elements but rather a fluid speaker exercising subjectivity and autonomy.

Keywords: socio-pragmatic perspectives, Korean honorifics, L2 Korean, politeness, Korean learners in Australia

[†] Corresponding author: narah.lee@uq.edu.au



1. 서 론

언어학을 비롯해 문화학, 인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되어 온 공손(politeness)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서 (Haugh & Chang, 2015), 사회문화적, 심리적,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언어적 관심사가 되어 왔다(Spencer-Oatey, 2002). “협동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의 형태를 구성하고 규제, 또는 재생산하기 위한 전략”(Watts, 2003, p. 34)으로 정의되기도 하는 공손은 이처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개별 언어마다 다르게 표현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공손은 청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화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요청, 사과, 불평 등의 화행에 필요한 대화 전략으로서 이해되며, 대개 could, would 등의 조동사나 excuse me, please 등과 같은 울타리 표현(hedge)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한국어에서 공손성을 실현하는 방식은 개인적 전략이기보다는 공동체적 동의이며, 규범적이고 의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화자는 경어법(honorifics)¹⁾을 통해 공손을 표현하고, 그로써 원활한 사회관계를 유지한다(Hur, 2010). 적합한 형태의 경어 사용을 통해 위계질서, 친밀도 등 화/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인식하는 것은 한국어의 공손성이 표현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Lee, 2001). 다시 말해, 한국어의 공손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으로 규범화된 경어법이라는 언어적 규칙 안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공손성의 표현범위가 극도로 제한적이다(Lee, 2015). 일본의 대표적 사회언어학자 Ide(1982, 1989, 1993)가 일본어와 한국어의 경어 체계 성격으로 언급한 ‘discernment’ 역시 Brown & Levinson(1987)의 ‘volitional’ politeness, 즉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화자의 자유 의지적 언어적 공손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언어적 공손성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위계질서가 철저히 반영된 개인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의무’로서 실현되기 때문에(Leech, 2014), 공손에 관한 연구가 엄격한 언어적 규칙으로서의 경어법에 관한 연구와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문화의존성이 두드러지는 한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어의 언어적 공손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다(Byon, 2004).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²⁾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언어적 공손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어 학습에서 문법적 오류는 개인의 숙련도 부족에서 비롯된 ‘오류’로 여겨지지만,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³⁾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1) Lakoff(1972, p. 911)는 honorific을 “화자가 청자에게 공손함을 전달하는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표현”으로 넓은 의미로서 정의한다. Honorifics를 경어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좁은 의미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Cho, 1979).

2) 세계적인 언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듀오링고(Duolingo)의 2020년 글로벌 언어 보고서(Blanco, 2020)에 따르면 한국어는 유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학습자가 증가하는 언어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여전히 그 상승세는 지속 중이다.

하는 내용의 의미 전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맥락 이해 정도나 태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한국어 학습자의 적절하지 못한 경어 사용이 단순 문법적 ‘오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화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화용적 실패는 궁극적으로 대화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문법 차원의 오류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Park & Oh, 2009).

Lee(2012)에 따르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나 문법 차원의 오류보다 화용적 실패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수용에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담화 맥락이나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 등에 기반한 적합한 경어 사용은 한국어의 기본 문법과 다름없다. 반면,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만의 언어적 공손에 대한 이해와 경어법을 통한 엄격한 공손의 실현은 단순한 문법 숙련도 강화만으로 성취하기 어렵다. 경어법의 올바른 문법적 적용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올바른 공손의 이해와 실천을 위해, 경어법에 대한 화용적 이해와 실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적 공손성 습득에 관한 초기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경어 사용을 비교하여 학습자 발화 오류를 분석하는 인지적 접근법에 집중되어 있었다(Choo, 1999; Lee, 1990; Lee, 1997; Park, 1996 등). 이후 요청이나 거절 상황의 공손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문화적, 화용적 접근의 연구도 늘어났다(Cho, 2003; Jeon, 2007; J. H. Kim, 1999; Lee, 2003; Park, 2006; Park, 1995; Yoon, 2004 등). 이러한 연구는 Brown & Levinson(1987)이 제안한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 FTA)’를 이론적 배경으로 소개하면서, 공손성의 실현은 화자 간의 관계와 담론의 상황, 즉 체면 위협 정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기존 연구는 언어적 공손성을 문법이나 인지적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담화 및 화용적 맥락으로 관점을 이동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몇몇 화행에만 집중하고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체계의 부족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공손 연구의 가능성을 문법-문맥 대응(form-context mapping)으로 한정 짓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Brown & Levinson(1987)의 보편적 공손의 개념이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서의 공손의 이해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은 최근의 공손의 연구에서 다수 지적된 바이다(Kim, 1996; Lee, 20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공손에 대한 화용적 능력의 습득과 활용에 중점을 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Hur, 2010).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에 진입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 과정이다(Park, 2017). 특히 그 체계나 활용이 모어와 전혀 다른 한국어 경어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3) Thomas(1983)는 화용적 의미 전달의 오류를 화용적 오류(pragmatic error)가 아닌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로 표현했는데, 화용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 전달의 성공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해서, 단어나 문장 수준의 문법 지식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과 화용적 전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학습자에게 큰 도전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 모어 화자의 경어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Brown(2011)의 방법론을 일부 활용하여, 본 연구는 호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경어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및 태도를 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한국어의 공손’을 받아들이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한국어 공손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통사론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경어법과 공손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고(Park, 2017),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주로 경어의 습득에 관한 인지적 관점에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뤄져 왔다(Choo, 1999; Lee, 1997; Park, 1996 등). 즉,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 경향을 규범으로 설정하고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표현이 얼마나 모어 화자에 가까운지를 평가하는 차원에 국한되었다. 또한, 공손의 사회언어학적, 화용적 특성에 주목한 경우라도 한국어만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분석보다는 범언어적으로 적용되는 공손의 화용적 성격을 한국어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Cho, 1980; Kim, 1990; H. S. Kim, 1999; Kim, 1996). 이는 한국어만의 공손 개념이나 공손 이론을 확립하기보다 Goffman(1967), Brown & Levinson(1987) 등의 일반화된 언어적 공손 개념과 체면 이론을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독자적인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공손의 연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Hur, 2010).

한편,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요소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Hwang, 1976; Kim, 1990; Park, 1976)를 기반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Cho, 2003; Jeon, 2007; Lee, 2003; Park, 2006; Yoon, 2004). 이 연구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한국어 공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국어 학습자가 경어 표현을 오남용하거나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어의 언어적 공손성에 대해 담화적이고 화용론적 시각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손이 실현되는 환경적인 중요성과 특정한 상황에서 언어적 공손의 패턴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Yoon(2004)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가 그들의 ‘적극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 즉 한국어의 경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적 공손성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한 패턴이나 어휘를 학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습자의 화용적 능숙도와 공손 표현 수행 능력의 연관성까지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화용론의 이해 범주를 단지 화행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언어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Grabowski, 2009).

기존 한국어 공손성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보완한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Byon(2001, 2004, 2006)은 요청의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원어민의 화행을 비교했는데, 한국어 학습자가 경험하는 표현의 어려움이 단지 문법적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화 및 교차언어학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 데에 기존 화행 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다. 즉, 사회문화적 지식이 부족한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 맥락에서는 단지 언어적 지식이 부족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간주된다는 것이다. Brown(2011)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해당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경어법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완전히 학습하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 규범에 벗어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의 인지적 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내에서 '서양인'으로서 정체성을 표면에 드러냄으로써 유리하게 작용했던 경험을 언어 습관에 투영하거나, 혹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서구의 평등주의 가치와 한국어의 경어 작동 원리가 상충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Brown(2011) 역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적 능숙도를 갖추는 것이 한국어의 적절한 공손 표현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Byon(2001, 2004, 2006)의 연구 결과를 확인했다. 이 연구들은 언어적 공손이라는 규범의 준수 여부에 있어 한국어 학습자들의 자유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밝혀낸 중간언어(interlanguage)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다(Brown, 2011; Byon, 2001, 2004, 2006).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에 대한 연구는 짧은 역사만큼 선행 연구와 자료도 제한적이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며 목표 언어를 배우는 한국어 학습자와 달리 목표 언어의 외부 사회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한국어의 사회언어적 요소들에 가지는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호주 문화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공손성에 대한 화용적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지, 특히 경어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적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호주라는 대표적인 다문화 맥락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사회언어적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늘어나는 한국어 습득의 화용론적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 갈증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결과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경어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질적 연구이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한국어 공손성에 대한

중간언어 능숙도와 경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Brown(2011)의 방법론을 활용해, 사회문화적 환경이 한국어 경어의 화용론적 습득과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유효성이 검증된 연구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외부 타당성을 보장하고, 같은 연구도구가 다른 환경에 적용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astos et al., 2014; Berry et al., 2011). 본 연구의 접근은 한국어의 언어적 공손성 표현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경어법을 이해하며,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상위언어적 인식과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표 언어 환경의 사회문화적 입력이 부재한 상태, 즉 해외에서 한국어의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한국어의 경어가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외국어 학습의 중간언어 화용론 연구 분야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표 1에 나타나듯, 연구 참여자는 2022년 2월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한국어 학습자 여덟 명(여성 다섯 명, 남성 세 명)이다. 이들은 호주에서 태어나 초중고 교육을 호주에서 받았으며, 영어를 모어로 사용한다. 모든 참여자가 1년 이상 한국어 공부를 했으며, 호주 내 대학에서 1과목 이상의 한국어 과정을 이수했거나, 현재 수강 중이다.⁴⁾ 참여자의 한국어 능숙도는 대학에서 반 배정을 위해 실시한 레벨테스트(Placement Test) 및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결과를 기준으로 CEFR(Council of Europe, 2001)⁵⁾ 레벨 A1(2명), A2(1명), B1(4명), B2(1명)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총 여덟 명의 참여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그 중 응답자 8을 제외한 일곱 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표 1. 참여자 정보

식별번호	나이	성별	학습 기간	능숙도(CEFR)
응답자 1	20	여성	2년 이상	B1
응답자 2	20	여성	2년 이상	B2
응답자 3	20	여성	2년 이상	B1
응답자 4	24	여성	1년-2년	A2
응답자 5	32	남성	1년-2년	A1
응답자 6	20	남성	2년 이상	B1
응답자 7	25	남성	1년-2년	A1
응답자 8 ⁶⁾	22	여성	1년-2년	B1

4) 한국 사회와 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영향 및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학습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5) A1-A2: 초급, B1-B2: 중급, C1-C2: 고급.

3.1. 연구방법

3.1.1. 인터뷰

인터뷰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 경어 개념의 이해 및 사용 경험 등에 대해 물었다. 총 15개의 질문 중 11개 문항은 기존 연구(Brown, 2011)에서 차용하였다. 예를 들면, ‘질문 1: From your experience, would you say that honorifics are one of the most difficult aspects of the Korean language? (당신의 학습 경험을 통해, 경어가 한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라고 생각합니까?)’, ‘질문 3: In general, do you feel more comfortable using lay language or honorifics? (반말 혹은 존댓말 중 어떤 것을 일반적으로 더 편하게 느끼니까?)’와 같다. 나머지 4개 문항(질문 2, 4, 12, 15)은 한국어 경어를 받아들이는 학습자의 태도에 중점을 두어 연구자가 추가한 질문으로서, ‘질문 12: As honorifics do not exist in English, how did you develop your understanding of them? (경어 개념이 당신의 모어인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어의 경어 개념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나요?)’, ‘질문 15: To what extent do honorifics affect learning Korean? Do they hinder the acquisition of the language? Or do they help to learn? Have you found any difficulties? (경어가 한국어 학습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경어가 한국어 학습을 방해하나요? 아니면 도와주나요? 경어 학습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등이다.⁷⁾ 해당 질문을 토대로 연구대상자에게 일대일 대면 인터뷰를 수행했고, 인터뷰 과정은 연구 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취했다. 구조화된 질문을 먼저 제시하여 연구 대상자가 인터뷰의 방향성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답변을 끌어낼 수 있도록 꼬리 질문을 이어 묻기도 하는 반 구조적 인터뷰 형식을 따랐다(Dörnyei, 2007).

인터뷰 결과는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단어나 패턴에 주목하여 비슷한 주제로 범주화 하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 TA) (Braun & Clarke, 2006)에 따라 해석했고,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경어라는 새로운 언어적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음성 파일을 첨부하면 AI가 자동 전사를 수행하는 네이버 클로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전사하였으며, 자동 전사 후 연구자가 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하였다. 전사된 인터뷰 답변에서 공통된 키워드를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강조 표시하고(Dörnyei, 2007; Ellis & Barkhuizen, 2005), 표시된 항목별 키워드로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6) 설문조사만 참여.

7) Appendices 1, 2 참조.

3.1.2.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Google Forms로 수행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번째 부분에서는 참여자의 성별, 나이,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능숙도, 1년 이상 한국 거주 여부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조사해 이후의 응답을 분석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했다. 설문 조사의 두번째 부분에는 한국어 학습 동기, 한국어 경어에 대한 첫 인상, 그리고 한국어 학습의 가장 큰 어려움 등 3개의 주관식 태도 질문(Dörnyei, 2007)을 포함해 한국어 경어에 대한 태도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세번째 부분에서는 한국어 경어에 대한 태도를 수치화해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Likert 척도(1: 매우 비동의, 2: 비동의, 3: 중립, 4: 동의, 5: 매우 동의)를 이용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샘플사이즈가 30명 미만일 경우 해당 연구 도구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 신뢰도 측정을 위한 그룹 내 균질성을 확인하는 Cronbach's alpha test(Forero, 2014)가 의미가 없다는 Samuels (2017)의 규칙에 따라 신뢰도 검증은 시행하지 않았다.

3.2. 연구결과

3.2.1. 인터뷰

3.2.1.1. 경어 개념의 인지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어 학습 경험에서 경어가 낯설지만 한국어의 사회문화적 한 요소로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 1은 “영어가 모어인 나에게 경어 체계는 굉장히 낯설게 다가왔다. 사람의 생물학적, 사회적 혹은 상황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어가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경어는 학습자들에게 분명 ‘새로운 개념’이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유발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전반적(6명/7명)이었다. 그러나 경어가 한국어 학습에 ‘가장’ 어려운 개념이라고 답한 응답자 5를 포함한 세 명의 응답자(응답자 2, 5, 6)는 공통적으로 “경어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내부의 범주 및 종류가 어렵다. 왜냐하면 나와 대화상대뿐만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관계를 고려해 경어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영어 화자로서, 특히 격의 없는 영어를 사용하고 ‘slang option’을 선호하는 ‘호주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경어의 개념이 어려운 이유가 형태, 통사론적 이해에 있지 않고, 대화 안에서 관계를 설정하고 경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사회문화적 요소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어려움과 별개로 경어 체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배우는 언어에 대한 존중과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라

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2와 “궁극적으로 언어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어를 한국 문화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6은 경어가 어려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언어 사회의 문화와 화자에 대한 존중할 필요를 강하게 표현했다. 이로써, 학습자들이 경어를 어미의 변형이나 호칭어의 선택 등 단순한 한국어문법의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문화, 사회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도구로서 인지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한국어의 경어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한국어 경어 개념 확립에 학습자의 정체성이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3.2.1.2. 경어에 대한 태도 및 정체성

참여자 중 다수(5명/7명)가 한국어 경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응답자 5 및 7의 경우 경어 체계에 대한 거부감 혹은 소극적 수용의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 5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경어를 사용할 의향이 있나요?(질문 13)’에 대한 답변으로 다소 소극적 수용 의사를 표현했는데, 한국어 경어가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에서 지나치게 일찍 소개됨을 그 이유로 꼽았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경어 개념과 존재 의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경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단순히 한국어에 서툰 사람이 아니라,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실수를 할까 두려워 의사 소통을 주저할 때도 종종 있다”며 한국어 학습 초기 단계에 경어가 소개되는 것에 대한 역효과를 지적했다. 덧붙여, “경어에 대한 절대적 개념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가장 쉬운 경어 사용 여부 판별 기준은 ‘나이’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다소 무례하게 느껴진다.”며, 경어 사용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7의 경우, “목표언어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언어가 서툰 학습자로서 경어까지 사용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경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불편하지 않았다.”며 한국에서의 경어 사용 경험을 공유하였다. 해당 응답자 또한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나의 외모를 보고 즉시 모어 화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굳이 엄격하게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어를 한국어의 중요한 일부로서 이해하지만 적용이 다소 어렵다는 응답자 3과 4는 경어 사용에 대한 부담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해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과도하게 ‘-어/아요’ 어미를 사용하거나, 1인칭 주어로 ‘나’ 대신 ‘저’만 사용하게 된다는 지적을 했다. 응답자 1 또한 경어법 체계를 이해하고 문법적 적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존댓말을 항상 선택한다고

했다.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경어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식과 규범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호주인’이기 때문에 격식을 따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주 언급했다. 대화 상대가 경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의 불쾌감 여부를 묻는 질문 7에는 “호주인으로 자란 배경 때문에 상대방이 친근하게 대한다면 존댓말이든 반말이든 상관없다(응답자 1)”, “상대방이 반말을 사용함에 있어 경어 사용보다 편안함을 느낀다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에게 반말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한다(응답자 3)”, “한국어를 배우지만 한국 문화에 나를 완전히 투사하기 보다는 호주인으로서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다(응답자 6)”고 답변하여, 경어 사용에 있어 모어 화자의 규범을 절대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대화 상대 및 환경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경어 사용으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을 공유한 응답자도 있다. 응답자 2는 “호주인으로서 나는 기본적으로 불쾌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overly defensive), 대립적(confrontational)이지는 않지만, 초면에 반말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인지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 4는 언어 교환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어린 한국인이 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초면에 반말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무례하게 느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경어에 대한 태도의 긍/부정과 관계없이, 한국어 경어가 모어 화자에게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필수적 규범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호주인’ 혹은 ‘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어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3.2.2. 설문조사

인터뷰에 참여한 일곱 명을 포함해 총 여덟 명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를 묻는 다음의 질문을 했다: (1)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동기 혹은 이유), (2)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에 존경 및 공손 표현의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3)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여섯 명의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 학습 동기(질문 1)를 한국 음식,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문화에 대한 관심이라고 답변하였다. 학습 동기가 전적으로 자발적인 다른 응답자들과 달리 두 명의 응답자(응답자 5와 7)에게는 구체적 필요에 의한 학습 동기가 있었는데, 응답자 5는 한국인 파트너 가족과의 정서적 교류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유일한 참여자인 응답자 7은 단기 문화교류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경어 체계에 대한 첫인상을 묻는 질문 2에 대해 모든 응답자들이 ‘어렵다’, ‘낯설다’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했다. 응답자 1의 경우, 일본어를 먼저 배운 경험을 통해 동양

언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와 다른 한국어의 경어가 여전히 어려웠다고 답했다. 모든 응답자가 ‘경어가 함축하고 있는 한국 사회 계층 체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학습자(응답자 1, 3, 4)는 경어 사용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문맥과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한다고 답해 인터뷰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들(7명/8명)이 경어 체계가 한국어 학습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고 하였다. 한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요소는 ‘함께 연습할 상대방을 찾는 것(4명)’, ‘문장 구조, 문법 그리고 단어의 복잡성(2명)’,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경험하는 호칭에 대한 고민(1명)’, ‘영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어 특유의 뉘앙스(1명)’ 등이다. 한국어 학습이 심화될수록 경어법을 한국어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설문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Likert 척도 질문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어느 정도로 동의 혹은 비동의하는지 답했다.

표 2. 한국어 경어 체계에 대한 이해 Likert 척도

번호	질문
Q1	나는 한국어 경어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
Q2	나는 웃어른을 한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잘 알고 있다.
Q3	한국어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Q4	한국어 경어 체계는 배우기 쉽다.
Q5	한국어 경어 체계는 배우기에 다소 성가시다.
Q6	한국어 학습자들이 경어 체계를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Q7	한국어 학습자들은 경어 체계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Q8	나는 존댓말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다.
Q9	나는 한국인이 아닌 다른 학습자들과도 존댓말을 사용할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설문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어 경어 체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고(Q1: 4.4),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존댓말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Q3: 4.6). 반면, 한국어 존댓말 활용에 대한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Q2: 3.8; Q8: 2.8), 경어 체계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실제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경어 체계가 배우기에 쉽지 않다고 여겨진 데에 반해(Q4: 2.9), 성가신 요소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Q5: 2.1).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학습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할 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Q9: 4.4)이다.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외국인으로서 경어를

엄격히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거나 다른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응답한 인터뷰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어에서 경어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그들의 한국어 학습의 궁극적 목표에 경어의 적절한 사용이 내재되어 있음을 가늠케 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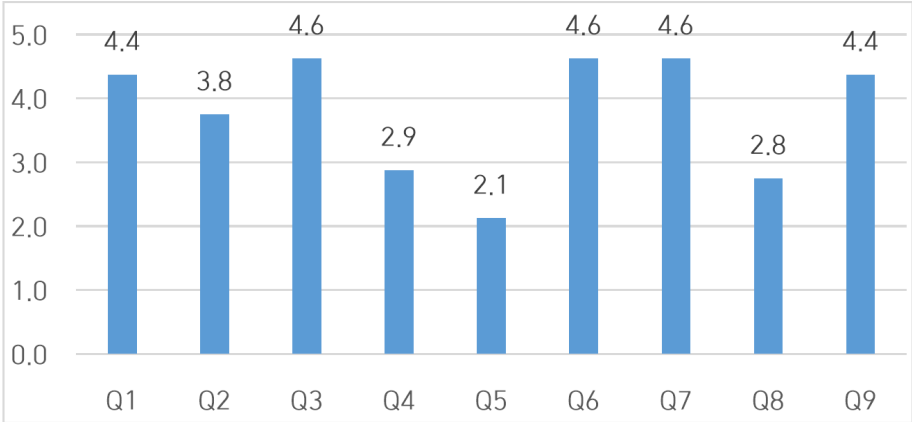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어 학습자 Likert 척도 점수⁸⁾

4. 논 의

4.1. 호주의 한국어 학습자의 경어 이해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대상언어의 사회언어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선별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예: Ishihara & Tarone, 2009; LoCastro, 1998; Siegal, 1996; Takenoya, 1995). 예를 들어, 성차별적 표현이나 일본어의 경어(敬語, Keigo)에 나타나는 극존칭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학습자도 보고가 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어의 경어에 대해 지나친 반발이나 거부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경어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 및 사회적 약속으로 여기는 한국인들과 달리, 개인의 자율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즉, 한국어의 경어가 한국 사회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도 궁극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수준에 가깝게 경어를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함에는 동의했으나, 당장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은 주저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였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진 대부분의 참여자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타

8) 1: 매우 비동의, 2: 비동의, 3: 중립, 4: 동의, 5: 매우 동의.

울적이거나 구체적 필요에 의해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게 된 경우 경어 체계의 학습 동기 및 적용 이유 자체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특히, 경어의 사용 유무가 주로 나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명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다. 한국어 학습 동기와 경어에 대한 태도의 차이, 즉 언어 학습 동기와 그 언어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수용하려는 의지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Brown(2011)에서 논의하듯, 외국어 학습자는 ‘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며 대상 언어 사회에 대한 약한 소속감을 드러내거나,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처럼 학습자가 고수해 온 가치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회적 계층에 기반한 해당 언어 규범에 대해 모어 화자와 다른 수용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호주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 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실제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전무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새롭게 성취하게 되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평가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격의 없는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며 한국어 경어 규범에 대한 미묘한 회피나 소극적 수용을 보였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의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4.2. 호주의 한국어 학습자의 경어에 대한 태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경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Q3, 6, 7: 각 4.6점), ‘한국인이 아닌 다른 한국어 학습자와도 적극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겠다’에 대해서는 같은 정도로 동의하지 않은 것(Q9: 4.4점)은 인터뷰 질문 7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가 ‘존댓말 사용이 기대되는 대화 상대방이 실제 대화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다’고 답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해당 연구 참여자는 ‘학습자 주관성(Learner’s subjectivity)’(LoCastro, 2003)을 가지고, 언어의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 즉 경어 체계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모어 화자와 다른 방식을 보인다. 모어 화자의 규범을 적극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존중은 하되 개인적인 편이나 사고방식에 맞춰 유연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일부 참가자(응답자 3과 4)가 연구원을 ‘언니’로 칭하며 존댓말과 함께 반말을 간헐적으로 사용했다. 특히, 응답자 3은 “나는 항상 밝고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 과정이 즐겁고 언니가 편하게 느껴져서 반말을 쓰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는 참여자가 모어 화자 규범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의견을 반영하고 적용해 유동적으로 받아들임을 반증하는 예라 할 수 있다(LoCastro, 2001, 2012).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공손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었다. 총 여덟 명의 응답자 중 여섯 명이 ‘나는 호주인이라서 괜찮지만’ 모어 화자와

대화를 할 때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표현을 했고, 그 방법으로 청자 높임 어미 ‘어/아요’와 일인칭 대명사 ‘저’의 무조건적 사용 등을 언급했다. 응답자의 일부(3명/8명)가 지적했듯이 한국어를 호주 내에서 적극적으로 연습할 기회가 부족하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는 대학의 교수진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인다. 참여자의 한국어 능숙도와 한국어 경어에 대한 이해나 자신감을 묻는 설문조사질문 1과 8의 답변을 고려했을 때, 경어 학습 정도에 비해 실질적 활용도는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모든 참여자가 반말보다 존댓말이 편하다고 답변한 것 역시 ‘안전한 선택’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 과정의 매우 초기에 경어가 교육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어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존댓말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이 역시 존댓말을 더 편하게 느끼는 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호주에 거주하는 호주인 학습자는 경어의 수용과 활용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경어 체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응답자 1, 2, 3, 6) 그 적용에 있어 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Lafford, 1995; Regan, 1995). 경어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이해나 화용적 개념 정립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힘든 대상 언어 사회 외부에서 학습하고 실제 모어 화자와의 교류가 쉽지 않은 학습자 환경을 고려할 때,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경어 사용에 우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호주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호주 대학생들의 한국어 경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본 질적 연구이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한국어에서 경어가 차지하는 사회 언어적, 문법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한국어 학습자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어의 사회문화적 의존성을 깊이 인지하는 반면, 그만큼 정확하고 적절한 사용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에 상관없이 모든 문장을 청자 높임 어미 ‘어/아요’로 끝내거나 일인칭 표현으로 ‘저’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표면적인 공손 표현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인다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국어 학습자와의 교류에서 경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고 싶지 않다며 경어의 실제적 사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모든 참여자가 격의 없는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나타냈는데, 한국어에서 경어의 적절한 사용이 필수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경어 체계의 수용과 활용은 모어 화자와 달리 선택적이었다. 경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표현했으나, 굳이 따르지 않아도 ‘호주인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답변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자율적으로 한국어를 학습을 선택한 학습자가 아닌 경우, 학습자의 정체성과 개인의 성향을 언어

습득에 투영시켜 한국어 경어를 더욱 소극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외국어 학습자의 자기정체성과 학습하려는 언어의 사회 규범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단순히 학습의 대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의식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Weedon, 1997). 본 연구는 언어적 능숙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용적 의도나 상위언어적 갈등이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습득 태도에 영향을 미쳐 모어 화자의 언어적 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호주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한 학습자가 깊은 사회문화적 이해가 필요한 경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진 외국어 습득에의 사회·화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학습동기의 균형이 부족했다. 여덟 명의 참여자 가운데 남성은 모두 세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두 명은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가 나머지 참여자들과 확연히 달랐다. 학습동기가 한국어 경어 체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 결과를 고려하면, 같은 학습동기를 가진 참여자의 수가 더 균형적일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 두 명의 참여자가 모두 남성이고 다른 학습 동기의 그룹에 속한 참여자 여섯 중 다섯이 여성인 점에서 참여자 성별의 불균형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 점을 보완한다면 성별이 본 연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수도 있었겠다. 둘째, 더 많은 수의 참여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결과의 유효성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해외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 및 교육자에게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의 경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손 문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stos, J. L., Duquia, R. P., González-Chica, D. A., Mesa, J. M., & Bonamigo, R. R. (2014). Field work I: Selecting the instrument for data collection. *Anais brasileiros de dermatologia*, 89(6), 918-923. <https://doi.org/10.1590/abd1806-4841.20143884>
- Berry, J. W., Poortinga, Y. H., Breugelmans, S. M., Chasiotis, A., & Sam, D. L. (2011).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nco, C. (2020). *2020 Duolingo language report: Global overview*. Duolingo. <https://blog.duolingo.com/global-language-report-2020/>
- Braun, V., & Clarke, V. (2006, 2006/01/01).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 Brown, L. (2011). *Korean honorifics and politenes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rown, L. (2015). Honorifics and politeness. In L. Brown & J. Yeon (Eds.),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pp. 303-319). Wiley Blackwell. <https://doi.org/10.1002/9781118371008.ch17>
- Brown, P.,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on, A. S. (2001). *The communicative act of requests: Interlanguage features of American KFL learners* (Publication Number 3030170). Ph.D.,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Ann Arbor.
- Byon, A. S. (2004). Sociopragmatic analysis of Korean requests: Pedagogical settings. *Journal of Pragmatics*, 36(9), 1673-1704. <https://doi.org/10.1016/j.pragma.2004.05.003>
- Byon, A. S. (2006). The role of linguistic indirectness and honorifics in achieving linguistic politeness in Korean requests. *Journal of Politeness Research. Language, Behaviour, Culture*, 2(2), 247-276. <https://doi.org/10.1515/PR.2006.013>
- Cho, C. H. (1979). yengewa kwukeuy honorifics pikyosesel [A comparative introduction to honorifics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2(0), 325-340.
- Cho, C. H. (1980). Pragmatics and rules of politeness [Pragmatics and Rules of Politeness]. *Language Research*, 16(1), 1-11.
- Cho, K. A. (2003). *ilponin hankwuke haksupcauy yocheng(request) hwahayngey kwanhan yenkwu: hankwukin hwacawa ilponin hankwuke haksupcakanuy taycolul thonghay [A study of the request speech acts of Japanese learners of Korean : A contrast between native Korean speakers and Japanese Korean language learner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Choo, M. H. (1999). Teaching language styles of Korean.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3, 77-95. <http://www.jstor.org/stable/42922234>
- Council of Europe. (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örnyei, Z. (2007). *Research methods in applied linguistics: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method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s, R., & Barkhuizen, G. P. (2005). *Analysing learner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in face to face behavior*. Aldine.
- Grabowski, K. C. (2009). *Investigat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a test designed to measure grammatical and pragmatic knowledge in the context of speaking*. Doctoral thesi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Haugh, M., & Chang, W.-L. M. (2015). Understanding im/politeness across cultures: an interactional approach to raising sociopragmatic awarenes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53(4), 389-414. <https://doi.org/doi:10.1515/iral-2015-0018>
- Hur, S. H. (2010). *A pragmatic study on expression of politeness in Korean*. Doctoral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Hwang, J. R. (1976). hankwuketaywupepuy sahyonenhakcek kiswul - ku hyengsikhwa (Formularization)uy kanungseng [The description of Korean honorifics in sociolinguistic perspectives- the possibility of formularisation.]. *Language and Linguistics*, 4(0), 115-124.

- Ide, S. (1982). Japanese sociolinguistics politeness and women's language. *Lingua*, 57(2), 357-385. [https://doi.org/10.1016/0024-3841\(82\)90009-2](https://doi.org/10.1016/0024-3841(82)90009-2)
- Ide, S. (1989). Formal forms and discernment: Two neglected aspects of universals of linguistic politeness. *Multilingua- Journal of Cross-Cultural and Interlanguage Communication*, 8(2-3), 223-248. <https://doi.org/10.1515/mult.1989.8.2-3.223>
- Ide, S. (1993). Preface: the search for integrated universals of linguistic politness. *Multilingua*, 12(1), 7-11.
- Ishihara, N., & Tarone, E. (2009). Subjectivity and pragmatic choice in L2 Japanese: Emulating and resisting pragmatic norms. In N. Taguchi (Ed.), *Pragmatic competence: Mouton series in pragmatics 5* (pp. 101-128). Mouton de Gruyter.
- Jeon, J. M. (2007). yochenghwahayngey nathanan kongson cenlyakuy silhyen yangsang [The Aspect of Politeness Strategy in the Request Speech Act]. *Korean Language Research*(21), 247-268. <https://doi.org/10.16876/klrc.2007..21.247>
- Kim, H. S. (1990). *A study of politeness in Korean -related to honorifics-* Seoul.
- Kim, H. S. (1999). *A study of politeness in English*. Doctoral thesis, Cheongju University.
- Kim, J. H. (1999). *oykwukinul taysangulo han hankwuke taywupep ihaynunglyek cosa yenkwu* Seoul.
- Kim, Y. S. (1996). *enecek kongson hyensanguy hwayongloncek yenkwu [A pragmatic study of linguistic politeness phenomena]* Doctoral thesis, Inha University.
- Lafford, B. A. (1995). Getting into, through and out of a survival situation: A comparison of communicative strategies used by students studying Spanish abroad and 'at Home'. In B. F. Freed & C. A. Ferguson (Ed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 study abroad context* (pp. 97-12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akoff, R. (1972). Language in context. *Language (Baltimore)*. 48(4), 907-927. <https://doi.org/10.2307/411994>
- Lee, H. Y. (2003). ilponin hankwuke kokup haksupcauy kecel hwahayng silhyen yangsang yenkwu [Refusal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 of Japanese learners of advanced or highly-advanced Korean languag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4(2), 295-323.
- Lee, J. B. (2001). *kwuke kyengepep sayonguy cenlyakcek thukse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ategic use of Korean honorifics]. Thaeaksa.
- Lee, J. Y. (1990). *hankwuke taywu phyohyen uy olyu pwunsek: hankwuke haksupca uy olyu hyensang ul pathang ulo*.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 Lee, K. S. (2012). *A study of pragmatic failures found in request speech acts by Chinese Korean learner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M. S. (1997). Acquisition of Korean referent honorifics by adult learners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2, 99-110. <http://www.jstor.org/stable/42922215>
- Lee, O. G. (2005). Distance of politeness in English communication: Proximating and distancing. *NKJE*, 47(2), 149-179.
- Lee, S. B. (2015). *sothonguy hwayonglon* [Pragmatics of communication]. Hankook Publishing House.

- Leech, G.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gman.
- Leech, G. (2014). Politeness: Viewpoints. In G. Leech (Ed.), *The pragmatics of politeness* (pp. 28-54).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5341386.003.0002>
- LoCastro, V. (1998). *Learner subjectivity and pragmatic competence development*. 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WA.
- LoCastro, V.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ttitudes, learner subjectivity, and L2 pragmatic norms. *System (Linköping)*, 29(1), 69-89. [https://doi.org/10.1016/S0346-251X\(00\)00046-4](https://doi.org/10.1016/S0346-251X(00)00046-4)
- LoCastro, V. (2003). Learner subjectivity. In *An introduction to pragmatics: Social action for language teacher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oCastro, V. (2012). *Pragmatics for language educators a sociolinguistic perspective*. Routledge.
- Park, J. Y. (2006). *hankwuke haksupcalul wihan yochenghwahayng kyoyuk pangan yenkwu [A study of teaching on request speech act for learners of Korea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K. J. (1996).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merican learners' use of speech levels and honorifics in Korean. *Minjok munhwa yŏngu*, 29, 349-377.
- Park, S. M. (1995). *hwakyey(speech level)wa hochinguy kwankyeyyenkwu: oykwukeloseuy hankwuke kyoyukyuk chukmyeneyse* Seoul.
- Park, S. Y. (2017). A study on the issue of Korean politeness research: Focusing on literature reviews. *The Language and Culture*, 13(4), 59-82. <https://doi.org/10.18842/klaces.2017.13.4.003>
- Park, Y. L., & Oh, S. Y. (2009). Korean EFL learners' refusals to requests and their perceptions. *English Teaching*, 74(4), 75-103.
- Park, Y. S. (1976). kwuke kyengepepuy sahojenehakcek yenkwu [Social philological study of Korean honorific].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72/73, 47-65.
- Regan, V. (1995). The acquisition of sociolinguistic native speech norms: Effects of a year abroad on second language learners of French. In B. F. Freed & C. A. Ferguson (Ed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 study abroad context* (pp. 245-268).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iegal, M. (1996). The role of learner subjectivity in second language sociolinguistic competency: Western women learning Japanese. *Applied Linguistics*, 17(3), 356-382. <https://doi.org/10.1093/applin/17.3.356>
- Spencer-Oatey, H. (2002). Managing rapport in talk: Using rapport sensitive incidents to explore the motivational concerns underlying the management of relations. *Journal of Pragmatics*, 34(5), 529-545. [https://doi.org/10.1016/S0378-2166\(01\)00039-X](https://doi.org/10.1016/S0378-2166(01)00039-X)
- Takenoya, M. (1995). *Terms of address in Japanese: Patterns of use by native speakers and American learners of Japanese* (Publication Number 9540021) Ph.D., Indiana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Ann Arbor.

Thomas, J. (1983). Cross-cultural pragmatic failure. *Applied Linguistics*, 4(2), 91-112.
<https://doi.org/10.1093/applin/4.2.91>

Watts, R. J. (2003). *Polite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edon, C. (1997). *Feminist practice and poststructuralist theory* (2nd ed.). Blackwell Pub.

Yoon, E. M. (2004). hankwukinkwa hankwuke haksupcauy kecelhwahayngey nathanan kongsoncenlyak pikyoyenkwu - cheymyenpoholul wihan enecek cangchilul cwungsimulo [A comparison between politeness strategies utilized by native Korean speakers and learners of Korean in act of refusal]. *Teaching Koreans as a Foreign Language*, 29, 117-145.

정우정

연구 조교(Research Assistant)

언어문화학부(School of Languages and Cultures)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ensland)

Gordon Greenwood Building (32)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St Lucia QLD 4072, Australia

E-mail: w.jeong@uq.edu.au

이나라

조교수(Lecturer)

언어문화학부(School of Languages and Cultures)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ensland)

Gordon Greenwood Building (32)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St Lucia QLD 4072, Australia

E-mail: narah.lee@uq.edu.au

접수일자 : 2022. 11. 1

수정본 접수 : 2022. 12. 5

게재결정 : 2022. 12. 26

Appendices 1. 인터뷰 질문(한국어 번역)

1. 당신의 학습 경험을 통해, 경어가 한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라고 생각합니까?
2.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경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나요?
3. 반말 혹은 존댓말 중 어떤 것을 일반적으로 더 편하게 느낍니까?

4.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에 두 가지 다른 존경 수준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5.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과 일상 대화에서 당신은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은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6. 한편, 다른 한국어 학습자들과 일상대화에서 당신은 반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은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7.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대화 상대가 경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쾌감을 나타낼 것입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당신에게도 발생한다면, 당신도 똑같이 불쾌감을 느끼게 될까요?
8. 어디서/어떻게 존댓말을 배웠나요?
9. 어디서/어떻게 반말을 배웠나요?
10. 한국어 문장의 끝이 대화 상대나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나요?
11. 당신이 경어를 잘못 사용했을 때 선생님이 고쳐준 경험이 있나요?
12. 경어 개념이 당신의 모어인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어의 경어 개념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나요?
13. 당신은 한국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경어를 사용할 의향이 있나요?
14. 당신의 경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15. 마지막으로, 경어가 한국어 학습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경어가 한국어 학습을 방해하나요? 아니면 도와주나요? 경어 학습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Appendices 2. 인터뷰 질문(영문 원본)

1. From your experience, would you say that honorifics are one of the most difficult aspects of the Korean language?
2. Before you learned Korean, did you know about the concept of honorifics?
3. In general, do you feel more comfortable using 반말 (lay language) or 존댓말 (honorifics)?
4.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about the fact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levels of formality to speak/write in Korean?
5. In your regular interactions with Korean learners, is there anyone who you speak to in 존댓말, but who speaks 반말 to you?
6. In your regular interactions with Korean learners, is there anyone who you speak to in 반말 but who uses 존댓말 to you?
7. Most Koreans will become annoyed when they are addressed using a level of

honorifics they believe to be too low. Will you also get annoyed when this happens?

8. Where/how did you learn to use 존댓말?
9. Where/how did you learn to use 반말?
10. Where did you first learn or realise that Korean has different verb endings depending on who you are talking to (and talking about)?
11. Have Korean teachers ever corrected you on your use of honorifics?
12. As honorifics do not exist in English, how did you develop your understanding of them?
13. Do you aim to and try to use honorifics the same as Koreans do?
14. What do you think influences your honorific use most?
15. Finally, to what extent do honorifics affect learning Korean? Do they hinder the acquisition of the language? or do they help to learn? Have you found any difficulties?

Appendices 3. 설문조사 질문(한국어 번역)

<Part 1> 인구통계학적 질문

1. 이름 (코딩 목적으로만 사용)
2. 나이
3. 성별
(1) 남성 (2) 여성 (3) 남성도 여성도 아님 (4) 밝히고 싶지 않음
4. 대부분의 당신의 삶을 어느 나라에서 보냈나요?
5. 한국어 학습을 얼마나 했나요?
(1)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3) 1년 이상 2년 미만
(4) 2년 이상
6. 한국 거주 경험이 있나요?
(1) 전혀 없다
(2)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만 방문
(3) 그렇다,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
- 6.1. (3)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얼마나 거주했나요?
- 6.2. (3)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왜 거주했나요?
7. 한국어를 제외하고 다른 언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언어를 배웠나요?

<Part 2> 주관식 태도 질문

1.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동기 혹은 이유)
2.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에 두 가지 다른 존경 수준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3.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Part 3> Likert 척도

1: 매우 비동의, 2: 비동의, 3: 중립, 4: 동의, 5: 매우 동의

번호	질문
Q1	나는 한국어 경어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
Q2	나는 웃어른을 한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잘 알고 있다.
Q3	한국어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Q4	한국어 경어 체계는 배우기 쉽다.
Q5	한국어 경어 체계는 배우기에 다소 성가시다.
Q6	한국어 학습자들이 경어 체계를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Q7	한국어 학습자들은 경어 체계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Q8	나는 존댓말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다.
Q9	나는 한국인이 아닌 다른 학습자들보다도 존댓말을 사용할 것이다.

Appendices 4. 설문조사 질문(영문 원본)

<Part 1> Demographic Questions

1. Full name (For coding purpose only)
2. Your age
3. Gender
 - (1) Male (2) Female (3) Non-binary (4) Prefer not to disclose
4. Which country did you spend most of your life?
5. How long have you studied Korean?
 - (1) less than 6 months
 - (2) more than 6 months less than 1 year
 - (3) 1-2 years
 - (4) more than 2 years

6. Have you ever lived in Korea before?
 - (1) Not at all
 - (2) I have been to Korea but only for travel
 - (3) Yes, I have lived in Korea before
- 6.1. If you checked 'Yes', please specify the length of stay
- 6.2. If you checked 'Yes', please specify the purpose
7. Have you ever learned any other languages other than Korean? If any, please specify.

<Part 2> Attitudinal Questions

1. Why do you learn Korean? (motivation/reasons)
2.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about the fact that there are different levels of formality to speak/write in Korean?
3. What is the biggest hindrance to learning Korean?

<Part 3>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ither agree nor disagree, 4: Agree, 5: Strongly agree

Number	Question
Q1	I understand the Korean politeness system.
Q2	I know how to address older people in L2 Korean.
Q3	I think it is important to use politeness markers in my L2 Korean.
Q4	I think the Korean politeness system is easy to learn.
Q5	I find the Korean politeness system annoying to use.
Q6	I think it is essential for L2 Korean learners to learn Korean politeness system.
Q7	I think L2 Korean learners should try to use Korean honorific system.
Q8	I am confident to use Korean honorific system.
Q9	I am willing to use Korean honorific to other L2 Korean learners.